

密陽 古法里 古墳壁畫에 나타난 服飾 研究

曹五順 · 劉珠利*

昌原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中央大學校 家政學科 博士過程*

The Study of Costume in a Mill Yang Kobumri Mural Painting

Oh Soon Jo and Joo Lee Yoo*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When restoring a tomb of Songeun, Park Ik that damaged by typhoon in Kobubri, Chungdomyon, Mill Yang, Kyoung Nam in October 2000, a flower designed stone and fresco was discovered. Soneun Park Ik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Kongmin dynasty and was consecutively occupied Sajaedogam(司宰少監; regarded as one of second highest official rank). The fresco realistically depicts custom of ordinary people in end of Koryo, beginning of Chosun dynasty that it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research material in study of ostumes.

Therefore, this research intend to contribute to study of costumes in general public of Koryo that has insufficient study materials through study and analyze of costumes in the fresco with literature research.

The number of figures in the fresco is presumed as 26-27 in all but clearly observed figures is only five women and four men and partly damaged figures are two men and two women. Women are worn relatively long yoo(𡇗) that can cover hip as an upper garment and Sang(裳) as trousers. The upper garments are all adjusted to right and has Jikryoung gik (straight collars) but there are strip attached collars or double collars among the Jikryoung gik. The length of Sang reaches to ankle and a waistband is trailed to below the knees.

Most of hair are combed in the two sides and made a ring, moreover worn ceremonial coronet, which imply the ceremonial parade. Distinguished from the frescos of Koguryo, there are no women wearing Po(袍) also Yoo with Dae(帶) and without were coexisted.

The mens costume is mainly appeared in two types. One(元) is Danryoungpo, Po with round collar and wearing a lozenge shaped crest with a brim, the other is Jikryoung Po, Po with straight collar, and wearing Ballib(拔笠), the latter is a costume of two man presumed as envoys. In the case of Danryoungpo, its length reached to ankle that shows decorum and in Jikryoungpo its length is below the knees that seem to offer practicality for envoys to guide a long journey. Both man and women are in decent cloth with a crest, which simple costume for ordinary people as a Chaksoopo that has comfortable length for movement and narrow sleeves.

Songeun Park Ik actively worked under regency of One dynasty that influence of Mongol is seen in mans crest. There are some changes but including womens costume most of cloth are followed Korean traditional costume style.

I. 서론

지금까지의 고려 복식을 연구 할 수 있었던 자료들은 주로 불화 위주였으며 약간의 목우상과 초상화 그리고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과 선녀(仙女) 등을 그린 고분벽화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복식을 연구할 수 있는 고기록(古記錄)으로는 중국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경(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과 『고려사(高麗史)』에 있는 여복지(輿服志), 고려 인종 때 엮은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 등이 있다. 고려도경은 외국인인 서경이 고려에 약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머문 후에 쓴 것이므로 신뢰성이 부족하며 『상정고금례』는 왕복과 백관복에 관한 기록에 불과하다. 유물 또한 문수사 반비(半臂)와 약간의 불복장(佛腹藏) 등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고려 복식 연구는 왕복과 백관복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반 서민들의 복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와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경남 밀양(密陽)시 청도면(淸道面) 고법리(古法里)에서 송은(松隱) 박익(朴翊) 선생(1332. 7. 27 - 1398. 11. 27. 문집의 기록, 1332 - 1420. 호석의 기록)의 묘(墓)가 발굴되어 우리는 새로운 벽화를 접할 수 있었다. 태풍으로 인해 박익 선생 묘가 훼손된 것을 박씨 문중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 화문석(花紋石) 등을 발견하였다. 묘는 화강암을 판석상으로 잘 다듬어 조립한 장방형 석실로 되어있고, 그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박익 선생 묘의 벽화는 당시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묘주(墓主)인 송은 박익 선생은 공민왕(恭愍王)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재소감(司宰少監)¹⁾을 역임하신 분으로 피장자와 축조시기가 분명하여 당시의 복식 뿐만 아니라 회화, 풍속, 건축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밀양 고법리 벽화에서 보여지는 복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자료가 많지 않은 고려말 조선초의 일반인 복식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고법리 벽화에 대하여

1. 선행연구 및 연구자료

박익 선생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고려말 조선초를 포함한 고려시대 전반에 걸친 복식연구와 그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대덕사(大德寺) 소장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는 관음보살(觀音菩薩)과 예배를 드리는 선재동자로 구성된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작품과 같은 도상의 원류는 둔황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이런 도상은 중국 내륙에서도 제작되어 고려에까지 파급되었으리라 생각된다.²⁾ 일본 대덕사 소장품의 제작시기는 14세기 전반기를 약간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³⁾ 수월관음도의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홍색 상(裳) 위에 황색 유(紬)를 입고 있다. 유에는 고름을 매고 있는데, 이는 유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띠가 없어지고 앞에 매듭 단추나 작은 실용성의 고름이 생기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깃에는 동정이 달려있다.⁴⁾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서복사(西福寺) 소장 관경서품변상도(觀經序品變相圖)에서는 9명의 시녀 복장을 볼 수 있다. 유 위에 상이라고 하기보다 군(裙)이라고 할 정도로 길고 넓은 치마를 입고 있다. 치마허리를 뒤로 두르고 홍색장식 매듭을 한 조(紐)를 길게 늘이고 있다. 그리고 표(表)를 두르고 있는데 대



<그림 1> 紬와 裳을 입은 여인들 [수월관음도]

부분 담홍색이고 홍색도 있다. 이는 마치 당·송의 여인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⁵⁾

하연(河演) 부인상(1376년 우왕2년~1453년 단종1년)은 동정이 달린 유를 먼저 입고 그 위에 군을 입었을 것이다.⁶⁾ 비슷한 시기의 조반(趙班) 부인상(1341년 충혜왕 복위2년~1401년 태종1년)은 상위에 유를 입고 포(袍)를 입고 있다. 삭색 치마를 흰 끈으로 매어 나란히 늘였고 그 위에 좀 더 진한 삭색 비단 저고리를 착용하였다. 하연 부인상과는 다른 착용법을 보이고 있어 같은 귀족층에서도 조선 초까지는 두 가지의 차림새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주로 원(元)과 교류 당시의 복식을 관찰할 수 있는 불화를 자료로 한 연구⁸⁾에서는 남자는 대개 관모(冠帽)류로 면류관(冕旒冠)과 통천관(通天冠), 진현관(進賢冠), 해치관(紒冠), 복두(巾頭), 건(巾), 임모(笠帽) 등을 쓰고 제복(祭服), 조복(朝服), 공복(公服) 등을 착용하였다. 부녀자들은 대개 고계(高)한 후, 보주식(寶珠飾)화관(花冠), 떨잠 보주식, 두건, 개두(蓋頭), 몽수(蒙首)를 착용한 후 둔부선 길이의 상의나 운견(雲肩)⁹⁾이 부착된 상의 등을 입고 하의로는 상과 군을 착용하였다.

부모은중경중 변상도의 여자는 주름진 치마위에 옆트임이 있는 유를 착용하고 있다.¹⁰⁾

고려말, 조선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방배동 출토 목우상(木偶像)은¹¹⁾ 서민의 복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본 연구자료인 밀양벽화에 나타난 복식과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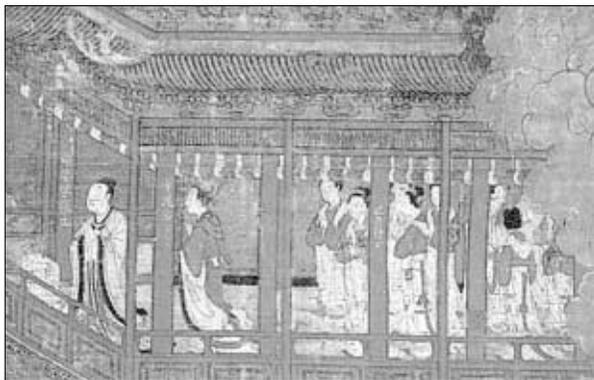
우 유사하다.

온양박물관 소장의 실물 상의(1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유(紬)의 형태)는 화장이 94cm로 지금의 저고리에 비해 길고, 길이가 56cm로 전시대에 비해 짧아졌으며 여밈이 중거형(重形)으로 변했다.¹²⁾¹³⁾

2 고법리 벽화묘의 조사과정과 구조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산 134번지에 위치한 송은 박익 선생의 묘는 화악산 남서쪽 기슭에 뻗은 낮은 구릉 정상부에 조성된 밀양 박씨 문중의 선산 중심부에 석인상(石人像), 석비(石碑), 망계석(望桂石)과 호석(護石)을 갖춘 방형(方形墳)으로 축조되었다. 안은 도굴꾼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으며 발견된 비닐에 의하면 1987년을 전후해서 묘의 후면 중앙부와 전면 측부 양쪽으로 도굴이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굴꾼에 의해 남서쪽과 북동쪽 단벽이 훼손되고 벽화 일부분이 박리(剝離)되는 등 훼손 상태가 극심하다는 보고를 접한 문화재청에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존대책을 세우기 위한 긴급조사단을 구성, 학술적 발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는 2000년 10월 17일-11월 30일에 걸쳐 하게 되었다.

봉분(封墳)은 가로 605cm, 세로 482cm, 높이 230cm 규모의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이고 피장자의 두위(頭位)는 북동쪽이다. 이 봉분의 후면 호석



〈그림 2〉 왕비와 시녀의 복식 [관경서품변상도]



〈그림 3〉 동정 달린 紬를 입고 있는 [하연 부인상]

(護石) 끝에서 바깥으로 200cm 정도 간격을 두고 자연 석으로 축조한 병풍석축이 있고, 그 사이 바닥에는 자연 판석을 한 벌 깔아 놓았다.

내부 석실은 봉분 정상부에서 410cm 정도 깊이에 위치한다. 석실의 높이는 80cm, 폭은 90cm, 길이는 235cm로 고구려 벽화와 같은 웅장함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석실의 양 단벽은 1매 판석을 사용하고, 양장벽은 각각 상하 2단으로 포개진 4개의 판석을 연결하여 축조하였다. 그 위에 석회로 회칠하고 벽화를 그렸다.

벽화는 4면에 모두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 북동쪽 단벽은 도굴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어 확인하기 어려웠고, 나머지 3벽의 경우도 내부에 수분이 침투되면서 일부 훼손되었고, 목관을 안치하는 과정에서도 훼손되는 등 원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적 잘 보여지는 동쪽 장벽의 그림에 여인 3인과 남자 1인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고 앞쪽으로 일부 손상된 한 무리,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4명씩 짝을 이루고 있다. 서쪽 벽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여인 2인과 남자 2인, 앞쪽으로 일부 손상된 부분을 조합한 결과 세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장벽에는 4명씩 짝을 이뤄 세 무리가 있어 모두 24명이 그려져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¹⁵⁾ 또한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남쪽 단벽에는 말고삐를 잡고 있는 남자 2인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훼손이 심한 북쪽 벽과 천장에는 그림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러나 검은 먹선을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촬영 결과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그림이 그려졌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¹⁶⁾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나 안악 3호분, 수산리 벽화무덤 등을 보면 북쪽벽에는 묘주(墓主), 즉 피장자를 그려놓고 있으며 천장에는 천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¹⁷⁾ 박익 선생은 고려의 충신이며 고려는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 미루어 볼 때 밀양벽화에서도 북쪽에는 묘주인 박익 선생을, 천장에는 별자리와 같은 천상의 세계를 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⁸⁾

그렇다면 벽화의 인물들은 제각기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특별한 의례를 위한 행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에 들고 있는 그릇류와 관모(冠帽), 당(幢) 등은 공양을 위한 도구로 생각된다. 특히 일부 손상된 그림에는 찻잔을 든 손이 보이는데, 그 당시 차(茶)는 제일 귀한 공양이었다.¹⁹⁾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의 경우 비슷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 벽화 인물들이 모두 북쪽에 있는 묘주(墓主)를 향해 있으며 공양을 하고 있다. 본 벽화에 나타난 인물들도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벽화는 공양행렬도(供養行列圖)로 보인다. 함께 발굴된 화문석에는 아미타정토(阿彌陀淨土) 사상(思想)을 상징하는 역만(卍)자와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국화, 윤회(輪回)를 나타내는 연잎과 연꽃이 새겨져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벽화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아미타정토



<그림 4> 안악 3호분 벽화에 그려진 묘주



<그림 5> 연꽃, 역만자 등이 그려진 魂留石 (박익 선생 묘)

사상이다. 불교를 믿으면 죽은 뒤 아미타 보살이 극락(極樂)으로 데려간다는 사상이다. 말 고삐를 잡고 마주 보고 있는 두 명의 남자는 사자(使者)이다. 고분벽화에 서는 죽은 자가 내세로 타고 갈 수 있는 물건으로서 배와 말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말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내세는 먼 바다 저편에 있고, 특히 말을 필요로 할 만큼 대단히 먼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⁰ 즉 이 공양행렬도는 박익을 극락으로 천도하길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극락 천도 행렬인 것이다.²¹

벽화와 함께 발굴된 유물로는 지식(誌石)과 화문석(花紋石), 은제수저 1벌, 황송통보(皇宋通寶)와 홍무통보(洪武通寶), 분청사기 사발 1점과 녹유토기 1점 등이 있다.

3. 송은(松隱) 박익(朴翊) 선생

송은 박익 선생은 신라 시조왕(始祖王) 박혁거세(朴赫居世)를 시조로 하는 신라 밀성대군(密城大君)의 후예로서 중조(中祖) 휘(諱) 연부(彦孚)의 8세주손(八世曹孫)이다.

선생은 서기 1332년 임신년(壬申年) 7월 27일, 지금의 밀양시 북부면 삼포리 향제(鄉第)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태시(太始), 휘(諱)는 익(翊)이나 초휘(初諱)는 천익(天翊)이며 시호(諡號)는 충숙(忠肅)으로 송은(松隱)은 호(號)이다.

공민왕(恭愍王) 2년, 서기 1352년에 지공거(知貢擧) 허백(許伯), 동지공거(同知貢擧) 이곡(李穀)의 밑에서 과거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예의사총랑(禮儀司總郎),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직제학(直提學) 등을 거쳐 공양왕(恭讓王)때 잠시나마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있었다.

이성계(李成桂) 휘하에서 홍건적의 침략군과 북원(北元)의 나하추와 여진 등을 격퇴하는데 많은 전공을 세웠고, 우왕(禑王)때는 도순찰사(都巡察使) 이성계의 막하에서 왜구를 토벌하여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선생은 당대의 이름난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성부(誠夫) 박상중(朴尙衷), 도은(陶隱) 이송인(李崇仁), 삼우당(三憂堂) 문익점(文益漸) 등과 함께 교분을 나누는 절개가 깊은 학자의 한 분

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운수가 다하여 정치가 날로 잘못되는 것을 보고, 선생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을 어귀에 술을 심어 마을 이름을 송계(松溪)라 고치고 휘를 익(翊)이라 바꾸어 스스로 송은이라 부르며 시(詩)와 서(書)로 마음을 달래고 술과 거문고로 세월을 보냈으니, 이것은 비록 몸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마음은 고려의 상징인 송경(松京)과 송악(松嶽)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공양왕 임신년(서기 1392년)에 포은 정몽주가 화(禍)를 당하고 곧, 이태조(李太祖)가 등극하자 선생은 스스로 눈먹고 귀먹은 「맹오(盲叟)」라 하며 '맹세코 이씨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후 두문불출하였다. 이후 이태조가 다섯 차례나 벼슬에 오를 것을 청하였으나 선생은 죽음을 각오한 채 왕명을 모두 거절하였다.²² 이렇듯 곧은 박익 선생의 충절은 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태조 왕건릉(王建陵)에 고려를 상징하는 매화, 소나무, 대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이 박익 선생의 묘에도 소나무를 제외한 매화와 대나무가 곳곳에 그려져 있다. 특히, 대나무가 나타난 벽화무덤은 고려 태조 왕건릉과 박익 선생 묘가 유일하다.²³

박익 선생의 사망 연대는 『송은선생문집』에 의하면 무인년(戊寅年) 1398년 11월 27일이다. 그러나 묘지석에 나타난 사망연대는 1420년(세종2년)으로 약 22년의 차이가 생긴다. 이는 문집의 사망연대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이장(移葬)을 하였을 경우 이상하게된 연대를 묘지석에 썼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²⁴ 이에 KBS 역사스페셜 팀은 이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 시신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장할 때 생길 수 있는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묘지석의 사망연대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III. 벽화(壁畵)에 나타난 복식

1. 서북(西北)쪽 장벽(長壁)의 벽화

서북쪽 장벽의 벽화에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물은 여자2인, 남자2인으로 모두 4인이다. 먼저 여자의

복식을 살펴보면 두 명이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裳)위에 유(衣)를 입고 있다. 고려 여인들의 유·상의 착용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²⁵⁾ 우선 상류층의 경우 통일신라시대부터 착용되었던 중국식의 복장인, 유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상을 착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어 입은 경우와 일반인들은 고대로부터 답습해온 우리 고유 복장인, 상위에 유를 착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²⁶⁾ 본 연구 벽화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착장 방법을 하였다.

여자가 입은 적색 상의는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길이에 교임이 깊은 중거형(重形)의 목판치이며 동정을 달고 있다. 우리 옷의 특징 중 하나인 동정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여겨진다²⁷⁾는 추측을 뒷받침 하는 몇 안되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하연부인상, 수월관음도)²⁸⁾ 대는 두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여밈 끝에 작은 끈고름이나 매듭단추를 달은 것으로 추측된다.

뒤에 언급하게 될 동남쪽 장벽에 나타난 여자의 상의에 옆 트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북쪽 벽화의 여인들도 옆 트임의 유를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치마는 신발이 보일 정도의 길이로 폭은 그다지 넓지 않으며 불규칙한 주름이 잡혀져 있다. 유 밑으로 치마 허리끈 두 갈래가 무릎 밑 길이까지 내려왔다. 이 모습은 같은 시대로 추정되는 방배동에서 출토된

목우상과 아주 흡사하다.

여자 목우상의 유는 엉덩이가 덮일 만큼 길고 임(衿)도 마찬가지로 우임(右衿)에 교임(交衿)이 깊은 중거형이다. 소매는 직배래의 착수(窄袖)형이다. 고름과 띠는 관찰할 수가 없다. 상은 길이가 땅에 닿을 만큼 길며 적색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앞모습에는 유 밑으로 늘어진 두 갈래의 허리끈을 볼 수가 있다. 이 끈은 치마와는 이색(異色)이며 무릎을 지날 만큼 길다.²⁹⁾

벽화에 나타난 왼쪽 여인의 머리는 끝이 둥글고 볼록한 것으로 보아 쌍수환계(雙垂環)이며 오른쪽의 여인은 머리끝이 살짝 뽀친 것으로 보아 쌍수계(雙垂)이다. 이는 모두 쌍계에 속하는 발양으로 쌍계는 머리를 양쪽으로 빚는 형식을 말한다.³⁰⁾

쌍수계는 두발 양측의 계를 양 살짝³¹⁾이나 뒷머리의 아래로 드리운 머리모양을 말하며 환(環)을 만들어 드리운 것을 쌍수환계(雙垂環)라고 한다. 환의 형식에는 그 모양과 위치에 따라 다양하며 수에 따라서 명칭도 틀려진다. 이러한 쌍환의 발양은 모두 미혼을 상징한 풍속이었다.³²⁾

정수리에는 함께 발굴된 화문석에 나타난 연꽃 모양의 화관(花冠)류를 하고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소박하다. 남녀가 모두 머리에 관모(冠帽)류를 착용한 것은 이 벽화의 내용이 공양을 위한 행렬도임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관모류는 의례용인 것이다.

유사한 복식을 하고 있는 방배동 목우상(木偶像)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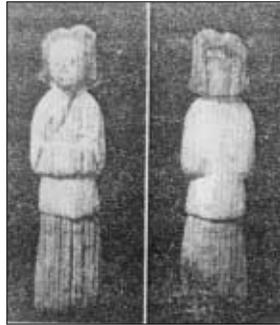
<그림 6> 박익 선생 초상화



<그림 7> 고려의 충절을 의미하는 매화와 대나무 (박익 선생 묘)



<그림 8> 서북쪽 장벽의 벽화



<그림 9> 방배동 출토 여자 목우상



<그림 10> 시종이 사방와령모를 들고 있는 모습 [事林廣記]

여인 발형(髮型)은 뒤쪽에 가체(加)한 것으로 보이며, 뒷머리 밑부분은 단발모양으로 가지런하게 다듬고 있다.³³⁾ 이는 머리를 아래로 드리운 쌍수계로 보인다.

신은 목이 없는 낮은 것을 신고 있다. 한치윤의 『해동역사(海東輿地)』에서는 “고려시대 말(襪)과 이(履)는 포(布)와 위(韋)로써 발에 맞추어 신었으며 묶지 않았다. 말(襪)은 포(布)를 사용하였고, 이(履)는 천한사람은 소가죽을 사용하였고, 귀한사람은 사슴가죽을 사용하였다”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여자들의 낮은 신은 가죽으로 만든 이(履)로 생각된다.

왼쪽의 남자는 두식(頭飾)에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찰이 가능하나, 오른쪽의 남자는 머리부분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여자 두 명의 복식이 같고 화관의 크기에 약간의 차이만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왼쪽의 남자 모습으로 훼손된 오른쪽 남자의 머리부분을 짐작하여도 무방할 듯 하다.

깃이 둥근 단령(團領)을 두 남자가 모두 입고 있다. 옷길이가 발목에 닿고 우임(右衽)이며 앞중심선이 있다. 단령은 진덕왕(眞德王) 2년 김춘추(金春秋)가 당에서 사여(賜與) 받아 입기 시작한 의복으로 고려말 관복화 되었다.³⁴⁾

옆트임이 있으며, 손과 들고 있는 그릇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나 옆에 있는 남자의 허리에 대(帶)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도 대(帶)를 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넓고 장식에 있는 대(帶)는 아니나 가는 띠도 아닌 적당한 넓이의 포대(布帶)로 보인다. 당시 고려말 조선초에 입었던 공복으로서의 단령에 비해 소매가 좁은 착수(窄袖)이다. 또한 당시 단령에 복두(幘頭)를

많이 착용하였으나, 특이하게도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마름모꼴에 테가 있는 관모를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모류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나, 중국 나라의 복장에서 이와 유사한 모자(사방와령모-四方瓦楞帽)를 발견할 수 있다(그림 10).³⁵⁾

단령과 관모의 안을 붉은 천으로 댄 듯, 관모의 테 부분과 단령의 옆트임에 붉게 채색한 것을 볼 수 있다. 신은 고려 관리가 단령에 목화(木靴)를 신은 것과 마찬가지로 발목위로 올라오는 목화(木靴)를 신고 있다.

2. 남동(南東)쪽 단벽(短壁)의 벽화

말 고삐를 잡고 있는 남자 두 명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이들은 죽은 자를 극락(極樂)으로 인도하는 사자(使者)이다. 서로 같은 복장을 하고 있다.

서쪽 벽의 벽화에 나타난 남자가 단령을 입은 것과는 달리 포(袍)를 입고 있다. 옷길기도 약간 더 짧아 무릎 아래에 닿는다. 임(衽)은 마찬가지로 우임(右衽)이다. 오른쪽의 남자는 깃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나 왼쪽의 남자는 채색이 벗겨진 것인지 원래 붉은색이 아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단령과 마찬가지로 중심선이 있고 옆트임이 있으며 허리에는 포백대(布帛帶)를 나비리본 형태로 매어 그 끈을 무릎까지 늘어뜨렸다.

소매는 직배래형의 착수(窄袖)이며, 머리에는 발림(笠)을 착용하였다. 고려시대의 초상화 중 이조년상(李兆年像)과 이포상(李褒像)도 중거형의 포에 발림(笠)을 착용하고 있다. 모두 우임(右衽)이다. 대(帶)에 있



<그림 11> 남동쪽 단벽의 벽화 I



<그림 12> 남동쪽 단벽 벽화 II

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포상은 각대(角帶)를 이조년상은 벽화의 사자(使者)와 같이 조대(角帶)를 매었다. 방배동에서 출토된 남자 목우상(木偶像)도 우임(右衽)의 포를 입고 있다. 그러나 벽화에 나타난 포와 다르게 길이가 땅에 끌릴 정도로 길며, 수구(袖口)도 관복인 단령보다는 넓지 않으나 공수(拱手)할 정도로 꽤 넓은 편이다.

발립(笄)은 그림에서와 같이 점(瞻)이 작은 감투형의 입자(笠子)로서 정수리에 보옥을 장식하나 벽화의 남자는 두 개의 깃털을 꽂았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삼국시대 이래로 새를 인간과 천상을 이어주는 매개로 생각하여 새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천상 즉 극락으로 이끌 사자(死者)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발의 형태는 뿔은 후 귀밑에서 둥근 고리를 만든 변수환계(垂環)로 중국 원나라의 남자 두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이다(그림 14).

3. 동남(東南)쪽 장벽(長壁)의 벽화

완벽하게는 아니나 어느정도 복장을 관찰 할 수 있는 여자 3인과 남자 1인,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여자 2인과 남자 1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자들은 앞의 서북쪽 벽화에 나타난 복식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유를 착용하고 있다. 깃은 모두 우임이나 앞서 동정으로 관찰되었던 부분이(서북쪽 벽화의 왼쪽 여인)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여자에게서만 보여지고 있다. 뒤쪽에 있는



<그림 13> 몽골식 拔笠에 홍색 포를 입은 이조년(李兆年) 초상화



<그림 14> 변수환계를 하고 발립을 쓰고 있는 원대 제왕상



<그림 15> 동쪽 장벽의 벽화



<그림 16> 동쪽 장벽 벽화의 일부 훼손된 부분

여자는 확실히 깃만 있으며, 그 끝이 다른 여자들처럼 오른쪽 옆구리까지 들어간 깊은 교임 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고름이 달리지 않은 것이 분명히 보이고 대를 매지 않았으므로 깃 끝부분에 작은 매듭단추를 달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일하게 대를 두른 것으로 나타나는 오른쪽 여자

를 보면 그 위치가 허리 아래쪽이다. 왼쪽에 있는 여자는 확실하게 띠를 두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 명의 여자가 모두 서쪽벽화의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치마 허리끈이 무릎아래까지 길게 내려왔다. 다른점이 있다면 뒤에 있는 여자의 허리끈 끝은 고이댕기 끝과 같이 삼각모양으로 마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도

<표 1> 벽화에 나타난 남녀 복식

벽화인물	복식				袍				: ::				袴	裳	首飾	冠帽	靴·履	비고
	깃	여밈	길이	帶	깃	여밈	길이	帶	깃	여밈	길이	帶						
서북	女(左)					직령	右	臀部						허리띠	쌍수환계	화관	履	동정
	女(右)					직령	右	臀部						허리띠	쌍수계	화관	履	
	男(左)	단령	右	발목	*								○		변수환계	외령관류	靴	
	男(右)	단령	右	발목	角帶								○		*	*	靴	
남동	男(左)	직령	右	무릎아래	布帛帶								○		변수환계	발립	靴	발립에 깃털장식
	男(右)	직령	右	무릎아래	布帛帶								○		변수환계	발립	靴	상동
동남	女(左)					*	右	臀部	*					허리띠	쌍수환계	화관	*	
	女(右)					직령	右	臀部	가는 布帛帶					허리띠	쌍수환계	제머리환	*	동정
	女(後)					직령	右	臀部						허리띠		상동(주정)	*	
	男	단령	右	발목	角帶								○		*	*	靴	단령안에 직령 포
	女(左)					*	우	臀部	*					허리띠	*	*	履	
	女(右)					*	우	臀部	*					허리띠	*	*	履	

분석 대상 - 총 여자 7인, 남자 5인 (훼손되어 거의 보이지 않는 남자 1인 제외)

* - 훼손되거나 가려서 안보임

○ -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

신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다.

두발은 쌍수환계(雙垂環·)로 왼쪽과 뒤에 있는 여인은 환(環)이 확실히 드러난다. 의례를 갖춰 화관류를 쓰거나 자신의 머리 혹은 가체를 이용하여 정수리에 환(環)을 만들어 장식하였다. 오른쪽 여인은 묘주(墓主)의 것으로 생각되는 관모를 손에 들고 있다.

남자들은 서북쪽 벽화의 남자와 마찬가지로 단령에 목화를 신고 있다. 발목까지 닿는 단령에 직배래형의 착수(窄袖)이며 우임(右·)이다. 앞중심선이 있으며 옆트임에 대(帶)를 매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단령안에 받쳐 입은 직령의 옷이 보인다는 점이다. 조선말에는 국속화되어 이중깃 형태가 되었던 중의(中衣)를 입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들고 있는 T자형의 막대는 당(幢)이라는 것으로 행렬시 붉은 천을 달아 세워두었던 것이다. 왼쪽의 여인이 정성스레 받쳐들고 있는 것도 붉은 천으로 싸서 공양하는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벽화에 나타난 복식을 문헌자료와 병행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벽화에 그려진 인물은 모두 26~27명으로 추정되나 우리가 관찰 가능한 인물은 여자 5인, 남자 4인이며 일부 훼손된 인물이 남자 2인, 여자 2인이었다.

여자들은 모두 둔부(臀部)를 덮을 수 있는 비교적 긴 길이의 유(衣)를 입고 밑에는 상(裳)을 입었다. 모두 우임이며 직령이나, 그 중 동정이 달렸거나 이중깃의 형태인 것도 있었다. 상의 길이는 발목정도이며 허리띠를 무릎아래까지 길게 늘였다.

머리는 양쪽으로 나누어 빗은 쌍수환계(雙垂環·)가 대부분이며 화관류를 착용하여 의례행렬임을 상징하고 있다. 고구려 벽화와는 다르게 포(袍)를 착용한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며 유(衣)에 대(帶)를 한 경우와 안한 경우가 함께 공존하였다.

남자의 복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단령(團領)에 테가 있는 마름모꼴 형태의 관모(冠帽)를 착용한 경우와 중거형의 포에 발림(拔笠)을 착용한 경우로, 후자는 사자(使者)로 추정되는 두 명의 남자가 착용하였

다. 단령의 경우는 그 길이가 발목까지 길게 내려와 예를 갖춘 것으로 보이며 포(袍)는 무릎 아래 길이로 먼길을 안내하는 사자(使者)로서의 실용성을 갖춘 듯하다.

송은 박익선생이 활발히 활동하였던 시기가 원(元) 간섭기였기에 몽고의 영향이 컸던 만큼 남성들의 관모류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 여자들의 복식을 비롯해 대부분은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나 우리 고유의 복제(服制)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가 모두 활동하기 편한 옷길이에 소매가 좁은 착수포와 같이 간소한 복장이나 관모류를 착용하고 예의를 갖춘 일반인의 모습이였다.

참고문헌

- 1) 궁궐에서 쓰는 육류, 소금, 생선, 딸감 등을 조달하는 조달청의 차관급
- 2) 한국미술연구소 편저, 고려시대의 불화-해설편, 시공사, 1996, p. 89.
- 3) Ibid., p. 89.
- 4) 김문자, "高麗時代 여인들의 衣·裳의 형태에 관한 研究", 복식학회지, 38호, 1998, p. 76
- 5) 유희경, "고려복식양식-여자복식을 중심으로-", 학예지, 4호, 육사육군박물관, 1995, p. 118
- 6) 김문자, op. cit, p. 76
- 7) Ibid., p. 74
- 8) 임영미,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 복식학회지, 1994
- 9) 윤건은 원래 고대 북방민족의 어깨 장식이었고, 그 원형을 어깨를 두른다는 의미의 피견(披肩)에서 찾을 수 있다.(김민지, '발해복식연구 II', 1994, 복식학회지 22호, p. 105)
- 10) 임영미, 한국의 복식문화 I, 경춘사(서울), 1996, p. 449
- 11) 이경자, "木偶像의 服飾 考察", 복식학회지, 2호,

- 1978
- 12)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p. 167
- 13) 김문자, op. cit, p. 78
- 14) _____, 현장 설명회 자료 -밀양 고법리 벽화묘-,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0
- 15) _____, 역사스페셜 -태풍이 찾아낸 고려벽화, 그 숨겨진 이야기를 밝힌다-, KBS, 2000년 12월 2일 방영.
- 16) Ibid.
- 17) 고구려연구회 편, 高句麗古墳壁畫, 학연문화사, 1988, p. 88
- 18) KBS, op. cit
- 19) 이기윤, 茶道, 대원사, 1989, pp. 87-91
- 20) 고구려연구회 편, op. cit, p. 125
- 21) KBS, op. cit
- 22) _____,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密城朴氏松隱公派 大宗會, 1999, pp. 12-18
- 23) KBS, op. cit.
- 24) Ibid.
- 25) 유희경(1998), op. cit, p. 165.
- 26) 김문자, op. cit, p. 76.
- 27) 백영자·최해율, 한국의 복식문화, 경춘사(서울), 2000, p. 164.
- 28) 김문자, op. cit, p. 80.
- 29) 이경자, op. cit, 1978.
- 30) 김민지,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 II”, 복식학회 지, 22호, 1994, p. 100
- 31) 살썩말이의 준말로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털, 귀밑털을 말함
- 32) 周蜂, 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 北京燕山出版社, 1988. p. 442.
- 33) 이경자, op. cit, p. 25.
- 34) 조오순, “團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 p. 56
- 35) KBS, op. cit.